

#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 2019 국가직 9급 국어(라영)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前) KG팩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정승,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등학교 / 홍익대학교 /  
웅지세무대학



집필) 이유진 우월한 문법규정,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독해, 박문각  
이유진 우월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국어 올인원,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300제,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실전300제, 박문각  
메가박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디딤돌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국문학과 국사의 입맛춤,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문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 다른 법이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 크지 못한다.
- 남부 지방에 홍수가 ㉢ 나서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 아닐까?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 이른 문법 - 형태론 - 품사 변별

★ 정답 해설:

㉠의 '크다'는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란 뜻을 갖는 동사이고,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란 뜻의 '나다'는 '난다, 나는'처럼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이다. 참고로, '크다'는 형용사와 동사로 품사 통용을 하는 단어인데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 '수준이나 지위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되다.'의 뜻일 때는 동사이고 이 외의 뜻은 형용사이다.

참고)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우월한 문법·규정 p. 106)

- 관형사형 어미['-는/-(으)ㄴ-']를 모두 쓸 수 있으면 동사이고, '-(으)ㄴ-'만 쓸 수 있으면 형용사이다.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ㄴ-')를 쓰면 동사이고, 기본형으로 현재를 표현하면 형용사이다.
- 명령형 어미['-어/-어라, -게, -오, -(ㅁ)시오, -어, -어요, -시어(세/서)요'], 청유형 어미['-자, -세, -(ㅁ)시다, -어, -어요']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 의도('ㄹ-')과 목적('ㄹ-')의 연결 어미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 동작상의 보조 용언 '-고 있다', '-아/어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 소망의 보조 용언 '-고 싶다'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 오답 해설:

- ㉠ '성격이 다른'이라는 관형절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용언이며, '다른다, 다르느'와 같이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형용사이다. 관형사 '다른'은 '판'으로 바꿔 쓸 수 있으나 ㉠은 바꾸어 쓸 수 없다.
- ㉡ 명사 '말'을 수식하는 '허튼'은 '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이라는 뜻의 관형사이다. ('허튼다'~ 지움)
- ㉢의 '아니다'는 '아니다, 아니느'와 같이 활용할 수 없고 '아니다' 그 자체가 현재형 어미와 결합하지 않은 채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문 2. 다음의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 ② 정보통신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
-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 정답: ① - 독해(화법) - 토론의 논제

★ 정답 해설: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한 긍정 평서문이며,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유지해야 한다.'와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쟁점이 '징병제도의 유지' 하나이며,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 없으므로 제시된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이다.

★ 오답 해설:

- ② '정보통신방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는 찬반 대립이 '개선할 수 있다.'와 '개선할 수 없다.'로 나타나고, 쟁점이 '정보통신방법의 개선' 하나이고 찬반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을 드러내는 서술어 '없다'를 활용한 '~할 수는 없다.'라는 종결 표현은 긍정 평서문의 종결이 아니므로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긍정 평서문은 부정 부사나 부정을 드러내는 서술어가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라는 종결 표현을 활용한 긍정 평서문이고, '폐지해야 한다'와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로 찬반 대립이 나타나며 쟁점이 '두발 제한 폐지' 하나이다. 그러나 '야만적인'이라는 단어는 '두발 제한 폐지'를 긍정하는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므로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라는 종결 표현을 활용한 긍정 평서문이고, '개혁해야 한다.'와 '개혁하지 않아야 한다.'로 찬반 대립이 명확히 나타나며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토론의 논제를 '내신 제도의 개혁'과 '논술 시험의 개혁' 두 가지로 제시하였으므로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자 :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어셨다 합니다.  
- 이강백, 「파수꾼」에서 -

- ①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 ②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 ③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 ④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해설자는 무대 위의 파수꾼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은 해설자의 아버지도 무대 위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의미이지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아니며, 아버지가 무대 위에 있다는 단서도 찾을 수 없다.  
**☆ 오답 해설:**  
 ① 해설자의 말에 따르면,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인다.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③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라는 해설자의 말을 통해, 시간적 배경이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라는 해설자의 설명을 통해서 공간적 배경이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임을 알 수 있다.  
**☆ 작품 해설: 이강백, <파수꾼>**  
 •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빗대어 풍자한 희곡이다. 총장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리 떼를 악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마을을 통제한다. 파수꾼 '다'는 이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나 결국 총장의 교묘한 논리에 말려들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파수꾼 '가'와 '나'는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의 존재를 일깨우고 각성시키면서 총장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의 습격을 두려워한다. 이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통제하려 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에 대한 풍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 전체 줄거리: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에서 파수꾼은 끊임없이 이리 떼의 습격을 감시한다. 파수꾼 '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는 외침과 양철북 소리에 항상 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다'는 이리 떼를 본 적이 없다. 어느 날 저녁, '다'는 파수꾼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망루에 올라가 파수꾼 '가'가 이리 떼라고 외치는 것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고는 그 사실을 총장에게 알린다. 총장은 '다'를 찾아와 이리 떼가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총장은 이리 떼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사람들의 긴장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번영을 지속시켰다는 말로 '다'를 설득한다. 총장의 설득에 '다'는 망루에 올라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구성  
 발단: 철책 너머에 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총장이 파수꾼들이 있는 망루로 찾아옴  
 전개: 총장은 이리 떼가 없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인정함.  
 위기: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고 총장은 그 일을 내일로 연기하도록 파수꾼 '다'를 설득함.  
 하강: 파수꾼 '다'는 오늘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됨.  
 대단원: 파수꾼 '다'는 총장의 의도대로 거짓말을 한 뒤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

문 4.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 ①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③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화법) - 공감적 듣기**  
**☆ 정답 해설:**  
 수빈의 두 대답에서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참고) 공감적 듣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는 '너 중심 듣기'라 할 수 있다.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판하거나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수용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줘야 한다.  
 공감적 듣기의 시작인 '들어주기'에는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가 있다.  
 • 소극적 들어주기: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해 주는 격려하기 기술  
 • 적극적 들어주기: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해 주고 반영해 주는 역할을 통해서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오답 해설:**  
 ①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라고 수빈이가 정아의 말을 반복해 주는 것은 정아의 말에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라는 수빈의 말을 통해, 수빈이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라는 수빈의 말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정답: ㉔ - 독해(문학) - 문학의 미적 범주

★ 정답 해설:

‘골계(滑稽)’는 대조적 개념인 ‘있어야 할 것’과 ‘있는 것’ 사이에서 ‘있어야 할 것’을 외면하고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는 미적 범주이다. 따라서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긍정한다는 ㉔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골계(滑稽)’이다.

‘풍자(諷刺)’와 ‘해학(諧謔)’은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근한 관점을 유지하느냐 대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풍자(諷刺)’는 대상이 지닌 결점이나 악행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꼬집어냄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즉, ‘있어야 할 것’이라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㉔이므로 ㉔에 적절한 단어는 ‘풍자(諷刺)’이다.

‘해학(諧謔)’은 풍자와 달리 대상을 비판하려는 의도보다는 독자들에게 동정심과 공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큰 미적 범주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해학은 비판이나 비난의 성격 이전에 나타나는 웃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있는 것’이 지닌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㉔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해학(諧謔)’이다.

참고) 2019 국가직 대비 파이널 특강

<p><b>승고미</b></p> <p>있어야 할 것 &gt; '있는 것'</p> <p>이상적 + 긍정적</p> <p>충, 진리탐구</p>	<p><b>우아미</b></p> <p>'있는 것' &gt; '있어야 할 것'</p> <p>현실적 + 긍정적</p> <p>자연친화, 호, 우정, 사랑</p>
<p><b>비장미</b></p> <p>'있어야 할 것' &lt; '있는 것'</p> <p>있어야 할 것 &lt; 을 추구함</p> <p>이상과 현실의 갈등</p> <p>전쟁, 모험, 유배</p>	<p><b>골계미</b></p> <p>'있어야 할 것' &lt; '있는 것'</p> <p>있어야 할 것 &lt; 을 외면함</p> <p>부정적 현실의 수용</p> <p>가난, 탐관오리, 가부장</p>

문 36. 다음을 바탕으로 (A)를 비평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 작품에서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은 작품에 따라서 서로 융합될 수도 있고 상반될 수도 있다. 상반은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거나, ‘있어야 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하면서 이루어진다. 한편 ‘있어야 할 것’에 의한 융합에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일단 별개로 나타나고서 융합되지만, ‘있는 것’에 의한 융합에서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처음부터 융합되어 있다. 이런 분석으로 승고(崇高)·우아(優雅)·비장(悲壯)·골계(滑稽)의 미적 범주가 추출된다.

있어야 할 것	
승고	비장
융합	상반
우아	골계
있는 것	

(A)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다.

- ① ‘있는 것’을 긍정하면서 ‘있어야 할 것’과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우아미가 느껴진다.
- ②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상반이 이루어지므로 비장미가 느껴진다.
- ③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있는 것’과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승고미가 느껴진다.
- ④ ‘있는 것’을 긍정하면서 ‘있어야 할 것’과 상반이 이루어지므로 비장미가 느껴진다.

문 8.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 - 독해(비문학) - 배치

★ 정답 해설: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뉴스로 바뀌었다.’라는 <보기>의 문장은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의 구체화 진술이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한 <보기>에서 ‘아침기도’와 ‘저녁기도’를 ‘뉴스’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보기> 뒤에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이 이어지는 것도 적절하다.

문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헌 먼덕1)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 개 깃을 뽀이로다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北窓)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 대승(戴勝)<sup>2)</sup>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  
 종조(終朝) 추창(惆悵)<sup>3)</sup>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나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에서 -

- ※ 1) 먼덕: 짚으로 만든 모자
- 2) 대승(戴勝): 오디새
- 3) 추창(惆悵): 슬퍼하는 모습

- ① ㉠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 ② ㉠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한다.
- ③ ㉠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고, ㉡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
- ④ ㉠은 실재하는 존재물이고, ㉡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 정답: ① -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제시된 부분은 화자가 이웃에게 소를 빌리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부분이다. 화자 자신의 '풍채 적은 형용'을 보고 '개(㉠)'가 짖는다고 하였으니, 짐승마저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느낀 화자의 감정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따라서 '개(㉠)'는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라는 표현을 통해 소가 없어 봄 농사를 놓친 화자의 수심을 더 깊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② ㉠과 ㉡은 화자의 내면이나 외양이 아니라 화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감정을 유발하거나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은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는 대상이라 볼 수 있으나 ㉡은 희망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④ ㉠과 ㉡은 모두 실재하는 존재물이다.

[지문 제시 부분 현대어 풀이]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풀러나오니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달팽이집(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복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발갈기를 재촉한다는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 작품 해설: 박인로, <누항사>

- 해제: 이 작품은 51세에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한 작자가 궁벽한 시골 생활의 형편을 이덕형이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이다.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도 현실 생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는 점에서 관념적이기만 했던 조선 전기 가사에 생동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대 사대부의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조선 전기 가사가 보여 주던 자연 완상의 세계와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 주제: 빈이무원하는 선비들의 고절한 삶과 현실 사이의 부조화
- 구성

<b>서사</b>	<b>본사1</b>
길흉화복을 하늘에 맡기고 안빈일념으로 살려함.	충성심으로 백전고투했던 임진왜란을 회상함.
<b>본사2</b>	<b>본사3</b>
전란 후 몸소 농사를 지어야 하는 궁핍함.	농사지으려고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문 10.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겹발을 비스듬히 걸으니 비취새가 보이는데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금 재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풀섶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뉘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달빛은 금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 에서 -

- ① 琴瑟之樂                      ② 輾轉不寐
- ③ 錦衣夜行                      ④ 麥秀之嘆

★ 정답: ② - 독해(문학) - 고전 운문의 내용 이해 + 어휘 - 성어  
★ 작품 해설: 허난설헌, <사시사> 중 '춘사'

- 해제: 이 작품은 4수로 된 한시로, 『난설헌집』의 칠언 고시조에 수록되어 있다. 임을 그리워하는 규방 여인의 심정을 사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춘사, 하사, 추사, 동사'로 나누어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각 수마다 서로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부재(不在)하는 임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제시된 지문은 이 중 '춘사'에 해당하는데, 비가 내리는 봄날 피꼬리가 우는 아름다운 경치와 임을 기다리는 '미인'의 외로운 처지가 대조를 이루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주제: 봄날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

★ 정답 해설:  
지문의 화자는 외로움에 시름겨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輾轉不寐(전전불매)가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輾 돌아누울 전, 轉 구를 전, 不 아닐 불, 寐 잘 때

- ★ 오답 해설:
- ① 琴瑟之樂(금슬지락):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소리'라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 = 琴瑟相和(금슬상화), 比翼連理(비익연리), 如鼓琴瑟(여고금슬), 連理比翼(연리비익), 鴛鴦之契(원앙지계), 二姓之樂(이성지락)  
琴 거문고 금, 瑟 큰 거문고 슬, 之 갈 지, 樂 즐길 락
  - ③ 錦衣夜行(금의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 (1) 아무 보람 없는 행동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2) 입신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이르는 말 (3) 남이 알아주지 않음  
錦 비단 금, 衣 옷 의, 夜 밤 야, 行 다닐 행
  - ④ 麥秀之嘆(맥수지탄):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것을 탄식함'이라는 뜻으로, 고국의 멸망을 탄식함. = 麥秀之歎(맥수지탄), 亡國之歎(망국지탄), 亡國之恨(망국지한)  
麥 보리 맥, 秀 빼어날 수, 之 갈 지, 嘆 탄식할 탄

문 11.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임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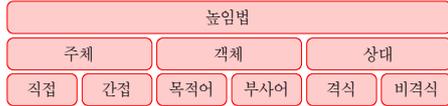
-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정답 해설:  
상대 높임법은 문장의 종결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③에서는 듣는 이(상대)를 높이기 위해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활용하여 '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표현으로, 높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로 '가' 대신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를 활용하였고, 서술어 '하셨습니다'에서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하였다.

객체인 '아주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로 '에게' 대신 '께'를, '주다' 대신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는 상대, 주체, 객체를 모두 높인 문장이다.

**참고) 높임법의 분류(우월한 문법·규정 p. 342)**



**참고) 상대 높임법의 종류(우월한 문법·규정 p. 343)**

구분	행시법	의문법	명령법	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오체	하오	하오?	하(시)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계체	하네, 함세	하는가? 하냐?	하계	하세	하는구먼
	해라체	한다	하냐? 하니?	해라, 하거라	하자	하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하는군요
	해체(반말)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하는군, 하는구먼, 하네

**★ 오답 해설:**

①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들어가셨다')를 활용하였으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데리다'의 높임말인 '모시다'를 활용하였다. '집'을 높인 말인 '택'도 활용되었으며 이는 맥락에 따라 주체를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객체를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서술어 '들어가셨다'는 격식체의 해라체를 활용한 표현이다. 격식체의 해라체는 높임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택에 들어가셨다.'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있으나 상대 높임이 없는 문장이다.

②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부사격 조사로 '께'와 서술어로 '드리다'를 활용하였다. 또한 화자를 낮춘 겸양의 표현인 '제가'와 '말씀'은 상대를 높인 표현이다. 서술어의 종결을 '될까요'라 하였는데 이는 비격식체의 해요체를 활용하여 상대를 높인 표현이다. 따라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은 있으나 주체 높임이 없는 문장이다.

④ 주체인 '주민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기울여 주시기'),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여러분'을 활용하였다. 서술어의 종결을 '바랍니다'라 하였는데 이는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를 활용한 것이다.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 표현으로, 상대 높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내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라고 겸양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 높임 의도를 표현하였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은 있으나 객체 높임이 없는 문장이다.

문 12.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탐이며 어용학(御用學)의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釀造)한다.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

국경이며 탐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에서 -

- ① 직설적인 어조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현대 운문의 형식 이해**

**★ 정답 해설:**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는 고전적인 질서를 비판적으로 보며,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어야 하는 대상, 즉 혁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오답 해설:**

- ① '~라'라는 명령형의 어미를 반복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혁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 ③ 이 시에는 '가리워진 안개'나 '바다', '하늘을 흐르는 날새', '바람', '햇빛' 같은 자연적 이미지와 '국경', '탐', '울타리', '궁궐' 같은 인위적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대조적 의미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1연에 등장한 '가리워진 안개', '국경', '탐', '울타리'를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어야 하는 부정적 대상으로, 2연에 등장한 '날새, 세상, 바람, 햇빛, 만 가지와 만 노래'를 긍정적 대상으로 활용해 혁신 대상과 혁신 후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제시하였다.
- ④ 제목의 '쟁기꾼'과 시 본문의 '가래 밀어'라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것들을 청산하기 위한 '체제 개혁'을 역설(힘주어 말함)하고 있다.

**★ 작품 해설:**

※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 해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핵심어는 제목의 '쟁기꾼'과 '대지'이다. 대지와 쟁기꾼은 신동엽 시인의 다른 작품이나 산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쟁기질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갈아엎었으면'이다.(제시된 지문에는 '몰아 넣라'가 같은 의미이다.) 이는 땅을 간다는 의미와 함께 변화와 혁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중의적인 표현이다. 이 시에서 쟁기질은 현실에 대한 '혁신'의 의지이다. 혁신성과 영원성을 토대로 하는 '개벽 정신'이 투영되어 있다.
- 주제: 쟁기질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를 갈아엎고자 하는 소망



문 15.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가) 찬성공 형제제서 정경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계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하고 꾸짖었다.

(나) 전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속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과 같은 전기소설이었다....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가장 재미있고 긴요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요전법(돈을 요구하는 법)’이라 한다.

- ①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 ②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
- ③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 ④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  
**★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찬성공이 어찌 상중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내어 읽냐고 꾸짖었으므로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는 점에서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소설을 들으려 돈을 던졌다는 내용을 통해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16.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고전과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과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피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고전과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 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흐림 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름으로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하게 되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과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과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과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과 음악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 ② 고전과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 ③ 고전과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④ 고전과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논지 전개 방식**  
**★ 정답 해설:**  
 고전과는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피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는 부분으로 보아 고전과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해설:**  
 ① 첫째 문단에서 ‘고전과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③ 둘째 문단에서 고전과 음악의 음악가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을 예시로 들며 이해를 돕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 ‘고전과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과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은 고전과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문 17.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나)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 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 ②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 ③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일반 추론**  
**☆ 정답 해설:**  
 (가)에서 경험론자들은 모든 관념과 판단이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에서 실용적 기술 개발은 상당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와 대조 되었으므로, 일차적으로 감각 경험을 인정하면서도 절대적인 확신을 부정하는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② (가)에서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언급은 찾을 수 있으나, (나)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감각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합리론적 사고)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③ (나)에서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으므로,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과학적 연구는 경험적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으므로,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기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남자들이 군에 가 훈련을 받을 때 비라도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물리는 장면은 정겨울 수밖에 없다. 프로 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게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 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 ②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 ③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 ④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부정 발문**  
**☆ 정답 해설:**  
 마지막 줄에서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했으므로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라는 내용은 틀린 선지이다.  
**☆ 오답 해설:**  
 ① 첫째 문단에서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는 부분을 통해 피자가 배달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라는 부분에서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셋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의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자장면과 피자는 안성맞춤이다.'라는 부분을 통해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19.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 ①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 ②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③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 ④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 정답: ③ - 이문 문법 - 의미론 - 의미의 변화**  
**☆ 정답 해설:**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을 뜻하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을 뜻하는 '휴가(休暇)'가 있다. '말미'와 '휴가' 모두 유의어로 공존하며 쓰이는 말이다.  
**☆ 오답 해설:**  
 ① '겨레'는 본래 '종친(宗親)'의 뜻에서 '동포(同胞), 민족(民族)'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② '얼굴'은 몸 전체 혹은 형상을 뜻하다가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④ '가을걷이'와 '추수(秋收)'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을 뜻하는 동의어로, 어느 한쪽이 소멸되지 않고 둘 다 공존하며 쓰이는 말이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디디티(DDT)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 (나) 그렇지만 이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디티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게다가 디디티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 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 버려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 (다) 디디티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디디티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디디티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디디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디디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 (라) 이와 같이 디디티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 중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①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디디티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 ④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정답: ③ - 독해(비문학) - 서술 전개 방식

★ 정답 해설:

(다)는 '디디티'가 지닌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한다. 그 후 실제로 '디디티' 사용이 금지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디디티'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해설:

① (가)는 중심 화제로 '지속성 농약'을 소개하고 그것의 한 예로 '디디티(DDT)'를 핵심어로 제시하였으므로 앞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이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가)의 말미에 등장한 '디디티(DDT)'이다. '디디티'는 물에 잘 녹지 않고 광분해나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지방에는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의 체내에서는 '디디티'의 농도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맹금류의 물질대사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껍질이 얇은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이 대부분 깨져 궁극적으로는

맹금류가 멸종하게 된다. '디디티'가 지닌 특성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④ (라)에서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소한 오염도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지방직/서울시 이유진 화제의 모의고사 시즌2>

- 경엄하라! 문풀로 20점+알파 상생!

4/19(금) 아침 9시 개강

(공통) 매주 제공> 레벨업 모의고사 2회분 +모고 씹어먹기

워크북+2019 EBS 반영 독해플러스

(서울시형) 교체 조립 문항 제공

+ 국립국어원+9차교과서+지식국어

2주자부터 7시30분에

독해플러스와 서울시저격 문항 번갈아 보강

<2019년 서울시 지식국어 100문제로 씹어먹기>

4/12(금) 오전 9시-13시

인강으로 무료특강 <지식국어 벼락치기> 들고 오기

★ 앞으로 이어지는 무료특강

4/7(일) 국어 최고점을 향해, 도움닫기!

- 시간: 오후 2시-6시

- 내용:

국가직 완벽 분석 > 패인분석 > 6월까지 도움닫기 >

지방직/서울시 최고점!

1부 국가직 완벽 분석

2부 최근 3개년 지방직/서울시 경향분석 및 화제의 모  
고 시즌2 OT

최근 3개년 지방직/서울시 기출 영역별 분석 자료 중점